

꽃·나무심기... 생태방생 큰 호응

방생문화가 바뀌고 있다

금지종	이 유
블루길(파랑불우렁)	외래종, 생태계 교란, 고유어종 육식
배스	외래종, 생태계 교란, 고유어종 육식
이스라엘잉어(황어)	외래종, 생태계 교란
떡붕어	외래종, 외래종, 생태계 교란
나일틸라피아	외래종, 생태계 부적합
철갑상어	외래종
무지개송어	외래종, 생태계 교란, 변종 우려
칼날자루	특정지역에서만 서식, 생존을 낮음
버들개	특정지역에서만 서식, 생존을 낮음
자기사리(빠기사리)	2급수 어종, 특정 서식지 벗어나면 생존을 낮음
가시고기	동해안 서식, 남·서해안 생태계 교란
미꾸라지	변종 위험, 생존을 낮음
비단잉어	변종 위험, 생존을 낮음
금붕어	변종 위험, 생존을 낮음
붉은귀거북(참거북)	외래종, 생태계 교란, 고유어종 육식, 천적 없음

생에서 점차 야생동물, 나무, 봉사활동, 장기기증 운동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생태방생, 인간방생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변화의 시작은 서울 조계사, 도선사, 길상사, 대구 관음사 등 일부 사찰에서 비롯됐다. 조계사와 도선사는 2001년부터 양식한 물고기를 풀어주는 관행을 버리고, 야생 적 응호련을 마친 야생동물을 놓아주는 방생을 하고 있다. 길상사도 사찰 주변에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생태사찰 가꾸기 운동을 펼쳐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 관음사는 방생법회를 대신해 장기기

의 시기, 개체 수, 장소를 고려해 방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바람직한 방생으로 사찰 생태기행, 사형제 폐지운동, 장기기증, 사후 화장서약, 헌혈 등을 꼽았다.

구태 여전...의식전환 시급

그러나 기존 방생문화의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찰이 상당수 남아있다. 구태의 방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양식 물고기 방생을 고집하고 있다. 사찰 재정 확보를 위해 물고기 방생을 적극적으로 유지

연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간섭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커 불교계의 방생문화는 생태방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생태적인 방생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방생지침서>를 발간,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방생지침서>는 방생 금지종과 권장종을 지정하고, 방생

화장서약·헌혈·장기기증 등 추진 인간방생 '어진벃 봉사은행'도 선별

일부 사찰선 아직 물고기 방생 고집

증, 화장서약, 헌혈 행사를 열고, 복지시설 인 연못마을에서 일일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방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들은 일부 사찰에서 시작된 모범적인 방생을 꼽으며 생명을 살리는 방생문화 정착을 강조해 왔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야생조수 사량의 막이주기와, 은행나무 심기, 나무 보살피기 등 방생문화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람 방생을 실현하기 위한 '어진벃 봉사은행' 제도를 도입,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방생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성덕스님은 "생태적 방생은 모든 생명체의 인연과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 생명종(種)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방생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무분별한 방생은 자

하는 사찰도 많다. 전북의 모 사찰은 '최적의 방생지'를 자처하며 전국 사찰에 홍보문을 발송하는 등 방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맑고향기롭게 김자경 기획실장은 "무분별한 방생의 폐해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방생문화는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방생을 주관하는 스님들의 의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중단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생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정보 제공 등 친환경적인 생태방생을 권장하는 한편 행사, 승려연수에서의 방생관련 교육과 생태·사람 방생으로의 전환에 대한 홍보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영주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상처받고 소외된 장애아들

그들도 '우리'임을 알아야...

"아까씨, 자리 좀 바꿔 앉으세요." "네?" "이 아이랑 아가씨랑 자리 좀 바꿔 앉으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나와 함께 앉은 장애아동 옆에 있던 50대 아저씨의 말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미처 깨닫기 전,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 자리에서 다른 칸으로 가버렸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장애인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을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다만 비장애인은 그것을 모를 뿐이다.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 한 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쓸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면 가슴이 저른다. 아이들의 사연, 가족들의 입으로 소개할까 한다. "어미는 집에 있는 돈 다 갖고 판 놀이랑 도망갔지, 아버지는 팔 죽고 나니까 직장도 안 가고 매일 술만 마시지, 나는 이렇게 아파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데 앞가림도 못하는 것 둘씩이나 키우려니가 너무 힘들었어. 하나는 그렇게 일찍 저 세상 보내고 하나 남았는데 더는 못 키우겠다. 판 데로 고마 보낼까다." 정신지체장애 1급 동민이(가명, 12, 2급 장애인인 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며칠 뒤 동민이 집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신세한탄을 했다. 작년만 해도 엄마와 여동생도 있었는데... 결국 동민이는 올해 초 이곳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은 지친 부모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준다. "소라는 혼자 집에만 있었어요. 말수도 적고 틀어박혀 지내니까 해 늘 걱정이었는데요, 요새 들어 전화도 제법 잘 받고, 집에 오는 손님에게도 어눌하게나마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제는 소라가 집밖을 나서도 잘 다닐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이 곳에서 청소년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꿈자람 교실' (정신지체장애아동 직업 전 재활교육 프로그램) 아동들과 보낸다. 소리를 지르거나 때를 쓰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 수업을 할 때만큼은 정상적인 아동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장애아들과 지내온 지 4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면, 여전히 내가 장애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는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못난 곳 없이 예쁘지만 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첫 발을 딛기 전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상처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을 보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았던 소라(가명·15). 어머니 오 씨는 포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던 소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고 말한다.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보면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다만 어떤 부분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할 뿐이다. 그 결핍을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것 정도로 여길 수는 없을까? 장애인과 함께 모든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날까지 장애우들과 함께 슬플 것을 다짐해 본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부터 3월 삼짇날까지 방생법회를 열어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풀어주는 전통을 갖고 있다. <법망경>에서는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을 행하라. 만약 세상 사람이 중생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방편을 써서 구호해 괴로움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방생을 권장하고 있다. 자비와 참회, 윤회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의례가 방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불교의 방생이 사회적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일이 잦아졌다. 생명을 살리는 방생이 아닌 행사를 위한 방생, 사찰의 재정을 충당하는 방생으로 전락한 데다가 무분별한 방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방생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본격적인 방생문화 시기를 앞두고 방생문화의 실태와 대안을 살펴본다.

생에 풀어줌으로써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토종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외래어종을 무분별하게 풀어주는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2001년 서울시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한강변 방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붉은귀거북, 배스, 중국붕어, 떡붕어, 가물치 등을 놓아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가 붉은귀거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시시피강이 원산지인 붉은귀거북은 다른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고 배설물이 수질을 악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어종이다. 방생 시 선호하는 것은 값이 싸고, 생명력이 길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 불교의 무분별한 방생은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 죽이기라는 비난은 물론 최악의 종교 상업주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물고기에서 생태·인간 방생으로 이같은 비난은 결과적으로 방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에서 구입한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획일적인 방

반생명(反生命)적 방생(放生) 근래 불교계 방생은 양식한 물고기를 야

2003 학년도

불교 茶人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 지도자과정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교

신입생 모집

학 과	요 일	기 간	개 설 과 목	비 고
기본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2시	2년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유럽차문화사 제다학(1), 제다학(2), 제다학(3), 제다학(4)	기본과정 50명 지도자 과정 50명
지도자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4시	2년	한국의현대사, 각국현대사, 다와정신, 다문화, 차와선 차도문헌, 차식물학, 차성분학, 차풍경학, 차시정학	기본과정 이 수 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도로 심신수행과 불교포교를 희망하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2003년 3월 8일(토)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2003년 3월 11일(화) 오후 2시

기본과정, 지도자과정 이수 후 다도포교사, 법사 수여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茶

불교 다도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茶道 학교

道

2003 학년도

포교현장의 의식 법사양성[1년과정]

동산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개강일시 : 2003년 3월 8일(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준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행련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 장엄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인,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 ······ 일반의식 장례의식(2) ······ 임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모 집 인 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강의일시 및 장소	원서교부·접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반 50명(1년) 연구반 30명(1년) 야간반 30명(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불교 의식 희망자 포교당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3:00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야간반) 	2003년 3월 8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반은 기본과정 이수자에 한함

2003년 3월 8일(토) 오후 1시 개강

입십만원
수료지는 동산한글의식법사 수여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茶

불교 의식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의식교육원

道